

국외출장 복명서

출 장 지 : 중국 단둥

출 장 자 : 이백진 연구위원

출장일정 : 2014. 6. 20(금) ~ 6. 22(일) (2박 3일)

출장목적

-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도로 사업 추진전략 연구를 통해, 북한 국제협력 개발사업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리 주도의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 마련, 북한 국제협력 사업의 구체적 대안노선과 협력 방안 제시를 목적
- 금번 출장은 단둥에서 개최되는 한중 공동학술회의((사)남북물류포럼 주최)에 참석해 관련 전문가들과 북·중 경제협력 현황 및 교통물류개발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고, 신의주-단둥지역 북·중 경제협력 및 북·중 교통연계 현장시찰을 수행

출장일정

날짜	출발지	도착지	업무수행내용
6월 20일(금)	인천공항	대련	• 인천 출발(09:00) → 대련 도착(11:50)
	대련	단둥	• 대련 출발(15:00) → 단둥(19:30)
6월 21일(토)	단둥		• 현장시찰(신압록강 대교, 아리축구화 공장, 황금평 경협 현장 등)
6월 22일(일)	단둥		• 학술회의(단둥 한국인회관)
	단둥	대련	• 단둥 출발(13:00) → 대련(17:00)
	대련	인천공항	• 대련 출발(18:55) → 인천 도착(20:55)

□ 출장 중 주요 수행내용

가. 통일·북한 특강 및 토론회 (6월 20일, 22일 : 버스 이동 중 수행)

- 주제1. 북·중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교류협력의 시사점(발제: 이유진 박사, 한국정책금융공사)
- 주제2. 단동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(발제: 권영경 박사, 통일교육원)
- 주제3. 정치적 사건에서 보는 중국 경제의 향방(발제: 추원서 박사,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장)
- 주제4. 남북방송교류협력: 이론과 실제(발제: 김용기, KBS남북협력기획단 제1실장)
- 주제5. 단동지역과 남북한 관광연계 방안(발제: 심상진 교수, 경기대학교)
- 주제6. 남북한 한글 표준화 방안의 의미와 중요성(발제: 최성 교수, 남서울대학교)

나. 북·중 접경지역 경협 현장 시찰(6월 21일)

- 신압록강 대교 : 신압록강 대교는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약 80% 정도의 전체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였으며, 현재 마무리 과정

<신압록강 대교 건설현장>



- 황금평 북·중 경제합작 지구 : 중국측 도시개발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인 반면, 북한측 개발은 아직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임

<황금평 북중 경제합작 지구>



- 아리축구화 공장

<아리축구화 공장 전경>



다. 전문가 초청강연 (6월 21일)

- 주제 ; 대북한 교역과 단둥: 현황과 미래비전 (강사: 이희행 회장 (단둥 한인회, 서울대 인류학과))

라. 학술회의 (6월 22일)

- 주제 : 환동해 경제·물류 신 네트워크 개척방안과 기업진출전략

<학술회의 세부 일정>

★학술회의(08:45-11:45) “환동해 경제·물류 신 네트워크 개척방안과 기업진출전략”	
사회 : 전현준 박사 (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)	
발제(08:45-10:00)	
1. 남·북·중 연계 교역 및 물류루트 개발 방안 : 김 철 소장 (요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)	
2. 변방이 중심이 되는 환동해 신 네트워크 : 이창주 박사 (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)	
3. 연변지역 물류망 구축현황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-중·북 경제협력을 바탕으로- : 안국산 교수 (중국 연변대학교 마케팅 학과)	
4. Mongolia's Natural Resources & Eurasia Initiative : 강재홍 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	
지정 및 종합토론(10:15-11:30)	
설영만 회장 (대한건설 ENG)	강태호 소장 (한겨레신문 평화통일연구소)

손우성 박사 (한국정책금융공사)	김홍광 대표 (NK 지식인 연대)
김범중 박사 (한국해양수산개발원)	안국산 교수 (연변대학교)



○ 주요 발표내용 요약(김철 교수 발표 중심, 기타 발표자료는 첨부파일 참조)

- 김정은 정권의 기조는 변혁, 발전, 협력임
- 변혁 : 평양 곳곳에 변화 깃발, 주체사상을 구현할 우리식 경제관리 방식, 개인의 이익 확보 보장
- 발전 : 병진노선으로 군사제일에서 경제제일로 기조 변화, 이제부터 더 이상 인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방을 강화하지 않겠음
- 협력 : 원산, 금강산 개발계획 특징을 살펴보면, 김정은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반드시 수행해야할 사업으로, 방대한 규모로서 북한만의 힘으로는 불가하고 국제협력 필요
- 북한의 변화
- 보다 적극적인 변화 : 사진허용, 대규모 개인 자영업자가 발생하고 종합시장 발생(종업원 2천명, 상품 1만개 이상)이며, 그 외에도 4천명 이상 규모의 시장도 있음
- 건축 민간 자본 10억불 이상, 150 평방미터 주택(5~10천만 달러 정도)

- 경제문제는 경제로 풀려고 노력하는 중이며 현재 경제분야 싱크탱크와 논의 중으로 외화 관리에 대해 고민 중

□ 시사점

- 금번 출장을 통해 현재 단둥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현황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, 한국 기업활동은 불가
 - 단둥현지 대북 관련 사업을 진행했던 기업들은 한국정부의 5.24 조치 이후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있으며, 기업 경영상태도 매우 악화된 상황임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둥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,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사업영역도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였고 그동안 쌓아왔던 인적네트워크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
- 인프라 개발 현황은 신압록강 대교가 기존 건설일정('14.9) 보다 약 6개월 정도 늦춰질 것으로 판단되며, 또한 신압록강 대교의 북한측 접근로 공사 미비로 향후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추가적인 도로 신설이 필요한 상황